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The Analysis of Leisure Time Use of Urban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한 영 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소 영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Young-Sun Ha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So Young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gender equity in the quantity and flow experience of leisure time of urban dual-earner couples having preschool children. The quantity of leisure time is measured by primary activity and the flow experience of leisure time is measured by primary and secondary activities. The data collect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4 is used.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s of 255 couples, and the statistical methods are frequency, percentage, paired t-test, and one-way ANOV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The first, the pattern of the leisure time was different between husbands and wives. The quantity of leisure time of husbands was longer than that of wives. The husbands spent more time to perform social activities, media contact,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while women did more in religious activities.

The second, husband's leisure flow experience was higher than that of wives. The pure leisure time of wives was shorter than that of husbands and wives experienced more contaminated leisure time by a secondary activity. In other words, wives's leisure is more likely to be interrupted, to involve episodes of shorter duration, and to be associated with personal care and unpaid work.

주제어(Key Words) :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urban dual-earner couples having preschool children), 여가시간(leisure time), 성별 평등성(gender equity)

I. 서론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통계청(2004)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2004년 성인의 수입노동시간은 1999년 조사결과인 4시간 28분에 비해 26분이 감소된 4시간 2분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시간은 1999년 조사결과인 5시간 8분에 비해 14분이 증가된 5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여가의 절대적 시간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개인생활에서 여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의 「근로자 여가생활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실시 이전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79%로 나타났고, 여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가시간의 확대는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산업, 국가정책 등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여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일반 대중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업에서의 고용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의 제공이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점차 우리사회가 노동중심 사회에서 여가중심 사회로 전환 되면서 이제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일과 생활의 균형맞추기(Work-Life Balance)' 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노동과 삶의 다른 부분들을 균형있게 운영하여 근로와 생활을 모두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삼성경제연구소, 2006), 우리사회가 삶의 질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화되면서 '일 중심적' 근로관이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근로 외에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 일, 가족 그리고 여가를 균형에 맞게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정부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보육시설 등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 기업에서는 근무형태 유연화, 출퇴근 시간 탄력제, 가족대상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및 서비스 등은 직장인 중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큰 기혼 직장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의 초기단계라 기혼 직장인들을 포함한 모든 직장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2005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3%로 나타났는데 그 중 기혼 취업여성의 참가율은 48.7%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과중한 가사·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의 과제로 남아 여성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 노동부담으로 여가시간의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남성들보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다. 기혼 취업여성들은 구속적 성격이 강한 시장노동과 가사노동보다 비교적 탄력적인 여가시간을 제한하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가시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사노동 시간을 간과한 채 노동시간 중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만 집중하여 분석을 하였고, 여성 혹은 남성 중 어느 한쪽만을 분석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다가 1965년 Becker에 의해 가사노동을 가계생산물을 생산하는 시장노동과 같은 생산활동으로 간주되면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간의 관계에 가사노동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의 시간배분(time allocation)의 측면에서 분석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가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발전되어 오면서 많은 연구들은 남녀간, 부부간 시간배분이나 여가시간에 있어 성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Robinson(1977)은 남녀간 시간사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부간 여가시간의 불평등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Nickols와 Abdel-Ghany(1983), Firestone와 Shelton(1988)은 부부의 시간사용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 성별에 기초한 역할기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허경옥(1997) 역시 남편과 부인의 시간배분구조를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남녀간 시간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철원, 김지영과 한우진(2006)은 여가의 몰입이나 여가만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Bittman과 Wajcman(1999)은 남성과 여성은 여가시간의

절대적 양 뿐 아니라 여가시간의 질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그들은 여가시간의 성별 불평등성을 순수여가와 동시적 여가를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는데 순수여가란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여가일 때 동시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적 여가는 여가를 수행하는 시간대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으로 남녀에 따라 여가가 얼마나 동시적으로 또는 순수하게 수행되고 있는가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여가시간의 질적 측면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여가연구 중 부부간 성(gender)차에 기초한 연구는 최근 10여년 동안 전형적인 남성표준과 차별되는 여성의 여가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양적·질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 및 인식의 차이는 젠더(gender)의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남녀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배분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체계, 그 시대의 기술문화수준, 생활방식 뿐 아니라 개인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남편 또는 아내 역할 수행, 가족생활주기, 취업여부, 가족형태, 그리고 자녀 수와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윤소영, 정유희, 2003).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연구들이 많지 않고, 성별에 따른 여가의 불평등성에 관한 연구들은 남녀간 여가시간, 활동, 제약요소 등의 단순비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 부부 가족(dual earner family)이 증가하면서 여성은 시간의 제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중역할 부담으로 가정일과 아이돌보기 뿐 아니라 수입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다. 여성의 취업과 취학전 자녀의 존재는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켜 여성의 이용가능한 여가시간은 감소시킨다. 따라서 여성들은 여가활동 시 또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윤소영, 김현, 2007; Bittman & Wajcman, 1999). 최근 생활시간 연구에서는 성별 시간배분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동시적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가족 역할 부담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동시행동시간이 길고, 여성 중에서도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동시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anchi, Robinson, & Milkie, 2006; 차승은, 2008에서 재인용). 손문금(2003) 또한 여성들의 여가시간의 특징을 단순성, 동시성, 집중집성으로 요약하면서 단순성은 여가행동의 수로, 동시성은 주행동과 동시행동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행동들의 결합으로, 집중집성은 집밖 여가행동 시간량이 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로 설명하였다.

여가활동이 얼마나 개인의 몰입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가활동의 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여러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적 여가는 동시간대에 한 가지 여가활동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여가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지닌다. 기혼 취업여성과 같이 시간의 제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남성들보다 한 가지 행동에 다른 행동들을 결합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이 많은 연구(손문금, 2003; 윤소영, 김현, 2007; Bianchi *et al.*, 2006; Bittman & Wajcman, 1999)에서 밝혀졌다. 과거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남녀간 불평등성 분석을 넘어 동시적 여가시간과 순수여가시간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규명해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성 복지향상 및 일과생활의 균형맞추기(WLB) 실현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볼 때 동시적 활동 분석을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여가의 문제와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그 동안 여가시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표성이 큰 전국규모의 자료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여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전국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데이터인 통계청의 「2004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간 여가시간에 존재하는 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성별의 불평등성에 기초하여 첫째,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자료에서 주행동만을 고려하여 여가시간 양의 부부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자료에서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주행동이 '여가' 일 때 동시행동 없이 여가활동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여가시간과 주행동이 '여가' 일때 다른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적 여가시간 차이를 분석하여 부부간 여가시간의 내용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여가의 개념

여가를 정의할 때 흔히 잉여시간, 레크리에이션, 휴양, 스포츠, 즐거움, 오락 등 다양한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데 Brightbill(1961)은 서로 문화가 다르면 여가의 개념도 다르다고 지적하였고, Kelly와 Freysinger(2000) 역시 여가는 시대, 계급과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고 주장하였다(노용구, 2003, p. 62).

일반적으로 여가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자유시간(free time)과 자유활동(free activity), 그리고 의식개념으로써 지각된 자유(perceived freedom)인데(김광득, 1997), 전자는 객관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접근방식이고, 후자는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접근방식이다. '시간'으로서 여가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며, '활동'으로서 여가는 자유시간에 발생하는 활동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여가에 대한 시간개념은 잔여시간개념(residual time concept)으로 보기도 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한 이후 남은 자유시간 즉, 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 의식개념으로 여가는 물질적으로부터 마음을 비운 심리적 상태 또는 경험의 상태(a state of being),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게 하는 마음의 상태로 규정된다.

Kaplan(1975)은 여가를 '시간(time), 내용(content), 마음(mind)의 상태'로 접근하여 복합적인 개념을 채택하였다. 그는 여가란 자유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비교적 자율적인 활동이나 경험이라 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Kelly와 Godbey(1992)는 여가란 경험에서 일차적인 의미를 찾는 자율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Rojek(2002)은 여가는 개인적인 자유와 해방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건이 부여되는 영역이며, 법률·정책·산업·삶의 질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회제도적인 영역이라고 언급하여 여가가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정운, 최석호, 윤소영, 2005).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여가를 정의할 때, 통계적인 측정 과정에서 경계(boundary)의 문제가 발생한다(윤소영, 박영정, 2005). 즉, 시간사용연구에서 조사되는 자유시간이나 의무시간은 인간 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구분한 여가활동이나 의무활동과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시간사용조사의 결과로는 동일한 활동에 대해 그것의 목적이 즐기 위한 것인지(여가) 아니면 의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노동)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찍이 Shaw(1985)는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배분연구에서 시간일지 기록 시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을 분류하도록 이끄는 "지각 요소"인 주관적 경험(내부적, 주관적인 관점) 즉,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였고, Mannell와 Kleiber(1997)는 시간사용 분석 또는 활동목록 측정을 통한 여가활동 및 의미가 연구자들에게 의해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분석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Bittman과 Wajcman(1999)은 여가에 있어 성별 평등성을 시간배분의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순수여가와 동시적

여가를 개념을 도입하였다. 순수여가란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여가일 때 동시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동시적 여가란 사람들은 종종 같은 시간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동시행동이라 하며, 사람들의 주된 행동이 여가일 때 동시에 유급노동이나 무급노동, 개인 유지를 비롯한 기타 부가적 여가행동을 하는 것을 동시적 여가라 한다. 그들은 순수여가는 동시적 여가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분으로 여가가 향유되어지는 다양한 질에 대해 알 수 있다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여가개념은 자유시간, 활동, 심리적 상태의 3가지 개념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처리할 때는 시간개념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유시간 개념으로 인식하여 자유시간으로서의 여가개념인 개인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생리적 필수활동이나 의무활동을 하고 난 이후의 잔여적(the residual)인 특징을 가지는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순수 여가시간은 주행동이 여가일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없는 시간으로, 동시적 여가시간은 주행동이 여가일 때 다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2. 여가와 젠더

1)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 차이

남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다 1965년 신경제학파인 Becker는 경제이론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를 하나의 생산의 주체로 파악을 하고,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간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후 시간배분이론을 응용한 연구들 즉, 가정 밖의 시장노동시간과 가정 내 가사노동시간의 변동이 여가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Douthitt, Zick, & McCullough, 1990; Shaw, 1985).

남녀의 여가시간배분 차이의 근원을 Becker(1981)는 남녀간 비교우위에 의한 전문화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남편은 부인에 비해 시장노동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남편은 시장노동에, 부인은 가사노동에 전문화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비교우위에 의한 전통적 전문화 경향을 약화시켰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시장노동을 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이 상승하면서 비시장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시장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공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됨으로

써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보다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로 대체시키는 이른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부족으로 여성들은 지금까지 남성의 역할로 여겨져 왔던 시장노동에 종사하면서 성차에 따른 가족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부담하는 이중노동부담의 문제가 야기되어 성차에 따라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전문화된 여성은 시간의 선택과 경험에 있어서 남성들과 다른 선택과 경험을 하게 된다(Bittman & Wajcman, 1999; 윤소영, 김현, 2007에서 재인용). 남성의 여가시간은 시장노동시간이 더욱 짧아지는 일반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가사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할애한다(이종희, 2001). 반면 여성들은 그들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와 가족돌보기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어 많은 시간을 그것에 할애하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단절된 여가시간을 갖는다.

Shaw(1994)는 사회 내 존재하는 남녀간 불평등성은 여가에서도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여성들의 삶은 너무 제한되고 억압되어 있어서 그들이 여가경험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손문금(2003)은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가정을 자신의 일차적인 책임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집을 중심으로 여가가 수행되며,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시간들 사이사이에 집중적이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여가의 종류로 한정되는 단순한 활동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일과 함께 중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언급하였다. 한경미(1991)와 조성은(1998)은 기혼취업여성들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여가시간 양의 부족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저하된 여가생활을 한다고 언급하였고, Bella(1989)는 여가 여성에게 무의미한 개념일지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여가시간에 존재하는 남녀간 불평등성에 대해 논하였다.

2)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

자녀존재는 끊임없이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 연령이 낮은 미취학 자녀는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서 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이용가능한 여가시간은 감소시킨다. 감소된 여가시간은 여가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 여가시간에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 여가를 즐기는 등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여성들은 전통적 가사노동의 의무와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및 임무 위임으로 여가가 남성들에 비해 더 제한적이다. 특히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교대근무”를 경험하면서 여가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Hochschild, 1989), 어린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여가시간을 더욱 감소시키는 변수로 많

은 연구(한경미, 1991; 허경옥, 1994, 1997; Coverman, 1985; Ross, 1987)에서 보고되고 있다.

기존 주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견해는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허경옥, 1997; 홍향숙, 박수경, 1994; 통계청, 2004). 이들 연구결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약 3-4시간이고, 여가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약 5시간, 취업주부의 경우 2-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한 60쌍의 시간배분을 탐구한 Shaw(1985)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적은 여가시간을 사용하며, 기혼여성은 취업이나 비취업 주부 모두 그들의 남편보다 여가시간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여가경험에 있어서 남편들의 여가시간이 부인들보다 유의하게 길었는데 특히 주말에 있어 부부간 여가시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여가시간에 있어 불평등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시간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취업여부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족구성원으로서 남편 또는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들의 시간양과 시간구조는 자녀의 유무와 연령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도 남녀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은 자녀양육 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가시간의 양과 내용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족생활주기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의 부담이 높고 이용가능한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한경미, 1991). 미취학 자녀일수록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게 되어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용가능한 여가시간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Mattingly와 Bianchi(2003)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의 여가시간을 조사한 결과 남편은 1시간 16분, 부인은 1시간 15분을 사용하여 부부간 여가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아이와 함께 하는 부모의 여가시간은 남편이 22분, 부인이 35분을 사용하여 부인의 시간이 남편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미(1996)는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간 여가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평일 남편은 2시간 23분, 부인은 2시간을 여가생활에 소비하고, 휴일에는 남편이 7시간 24분, 부인은 5시간 50분을 사용하여 평일의 여가시간은 부부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휴일에는 부부간 94분 정도의 여가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이 여가시간을 제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남편과 부인 각각의 여가시간은 배우자의 시간에 영향을 받고, 자녀의 존재가 부부의 여가시간에 큰 영향 미친다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여가시간 문제를 규명

할 때 부부 각자를 개별적인 한 개인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여 통합된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의 여가시간에 있어 동시성을 고려한 연구를 보면 Bittman과 Wajcman(1999)은 여가가 향유되어지는 질을 성별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하루 동안 순수여가활동(pure leisure activities)의 최대길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길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 여성의 여가는 남편보다 적었으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여가에 있어서도 여성은 여가의 계획과 진행 등으로 여가가 노동으로 간주되는 특성을 보인다(Shaw, 2001). 윤소영과 김현(2007)은 Bittman과 Wajcman(1999), Mattingly와 Bianchi(2003)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여가시간의 동시적 활동 분석을 통한 성차연구에서 여가시간의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연구결과 남편들보다 부인들이 여가시간을 순수하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녀돌보거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이차활동에서 가사노동으로 인한 개입으로 남성들보다 여가의 몰입도가 더 낮은 것이다. 여권주의 시각에서 여가시간은 여성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개념인데, 이는 무급의 가사노동의 의무와 여가활동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Griffiths, 1988; 윤소영, 김현, 2007에서 재인용). 즉, 여성은 여가활동 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비롯한 다른 활동들의 개입과 추가로 순수한 여가활동(pure leisure activities)이 동시적 활동들(simultaneous activities)과 함께 진행되어 여가시간의 질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주행동만을 고려한 여가시간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순수여가시간과 동시적 여가시간은 차이가 있는가?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전국 약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2일 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조사한「2004생활시간조사」시간대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하루 24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구분하여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신이 한 행동

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을 기입하는 응답자 직접 기입식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행동을 행동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 시간대 자료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10분 단위의 시간대별로 행동한 일차적 활동이 여가활동일 때 동시적 활동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미취학 자녀를 두고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원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된 맞벌이 부부의 시간일지 5개 그룹(금토, 일일, 화수, 목금, 토요일의 5개의 그룹) 가운데 주중과 주말 모두의 시간일지를 기입한 맞벌이 부부 255쌍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여가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한 이유에서이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맞벌이 부부 255쌍의 주중과 주말을 포함한 255set(1020개)이다.

3. 분석방법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간 여가시간에 존재하는 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성별의 불평등성에 기초로 부부간 순수여가시간과 동시적 여가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부부간 여가시간 및 내용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2004생활시간조사」의 9개의 대분류, 50개의 중분류, 137개의 소분류로 나타내진 행동분류체계를 개인유지와 개인유지 관련이동을 '개인유지'로, 일, 일 관련이동, 학습, 학습관련이동을 '수입노동'으로, 가정관리, 가정관리 관련이동, 가족보살피기, 가족보살피기 관련이동을 '가사노동'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을 '여가'로,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기입과 그 외 기타는 '기타'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Bittman과 Wajcman(1999)의 연구를 기초로 <표 1>과 같이 여가활동의 가능한 조합을 재분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부부의 순수여가와 동시적 여가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백분율(percentag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간 여가시간의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paired t-t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시간변수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여가활동의 가능한 조합

분류	주행동	동시행동
동시적 여가	여가	개인유지
	여가	수입노동
	여가	가사노동
	여가	여가
	여가	기타
순수여가	여가	해당무

〈표 2〉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변인	구분	남편	부인
연령	29세 이하	15(5.9)	40(15.7)
	30-39세	187(73.3)	197(77.3)
	40-49세	48(18.8)	16(6.3)
	50세 이상	5(2.0)	2(0.8)
	계	255(100.0)	255(100.0)
교육수준	평균	36.0세(4.769)	33.36세(4.330)
	고졸	105(41.2)	141(55.3)
	전문대졸	39(15.3)	44(17.3)
	대졸	101(39.6)	64(25.1)
	대학원졸	10(3.9)	6(2.4)
직업	계	255(100.0)	255(100.0)
	관리, (준)전문	54(21.2)	62(24.3)
	사무직	43(16.9)	52(20.4)
	서비스, 판매	72(28.2)	103(40.4)
	기능, 조립	74(29.0)	12(4.8)
	단순노무	12(4.7)	26(10.2)
소득	계	255(100.0)	255(100.0)
	100만원미만	18(7.1)	163(63.9)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28(50.2)	63(24.7)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71(27.8)	20(7.9)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21(8.3)	4(1.6)
	400만원이상	17(6.7)	5(2.0)

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부부의 연령을 보면 남편은 평균 36.0세이고, 부인은 평균 33.3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30-39세가 7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 29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30-39세가 7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9세 이하, 40-49세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편은 고졸이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 전문대졸 등의 순이었다. 부인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고졸이 55.3%로 가장 많았고, 대졸, 전문대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남편들은 29.0%로 기능, 조립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 관리·(준)전문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의 순이었다. 반면 부인들은 서비스·판매직이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준)전문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기능·조립직의 순이었다.

소득에 있어서는 남편이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이상-300만원미

만,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100만원 미만, 400만원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과분석

1.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구조

1) 시간사용 실태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의 차이에 대한 paired t-test 결과는 〈표 3〉와 같다.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는 평일과 주말 모두 개인유지에 하루 24시간 중 1/3이상을 할애하여 평일에는 부부가 약 10시간의 시간을 사용하였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1시간 가량 증가된 약 11시간 정도를 사용하였다. 평일에 부부는 수입노동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데 반해 주말에는 여가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다.

(표 3)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

(단위: 시:분)

대분류	평일		t값	주말		t값
	남편(N = 255)	부인(N = 255)		남편(N = 255)	부인(N = 255)	
개인유지	10:14	10:01	1,949	11:18	11:05	1,621
수입노동	9:13	6:19	11,387***	4:48	2:54	6,546***
가사노동	0:46	4:32	-21,778***	1:37	5:12	-19,878***
미취학자녀돌보기	0:19	0:27	-5,749***	0:35	1:33	-9,965***
여가	3:37	2:52	4,445***	6:06	4:34	6,690***
기타	0:10	0:16	-5,429***	0:11	0:15	-3,958***
합계	24:00	24:00		24:00	24:00	

* $p < .05$. ** $p < .01$. *** $p < .001$.

부부간 시간배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을 보면 평일과 주말 모두 수입노동, 가사노동, 여가, 기타였다. 남편은 수입노동, 여가에 부인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고, 부인은 가사노동, 기타에서 남편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다.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부인이 남편보다 많아서 여성들의 노동부담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입노동에 남편은 평일, 주말 각각 9시간 13분, 4시간 48분을, 부인은 6시간 19분, 2시간 54분을 사용하였다. 가사노동에는 평일, 주말 각각 남편은 46분, 1시간 37분을, 부인은 4시간 32분, 5시간 12분을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에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비율은 부인의 약 10%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서 주말로 가면서 증가하는데 이는 하루 24시간 중 수입노동비율이 감소하고 남는 시간의 일부가 가사노동비율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에서 전국 맞벌이 부부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음식준비나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족보살피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평일보다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평일에 시간의 압박으로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던 청소나 장보기, 미취학 아이돌보기 등의 가사노동 행위의 증가로 주말 가사노동시간의 양이 증가된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가사노동 시간에는 미취학 자녀 돌보기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가사노동에서 미취학 자녀돌보기에 사용한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이를 따로 분리하였는데 평일, 주말 부인의 시간이 남편의 시간보다 유의하게 길어 미취학 자녀돌보기 시간 역시 전체 가사노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차가 존재하였다.

여가시간은 평일, 주말 각각 남편은 3시간 37분, 6시간 6분을, 부인은 2시간 52분, 4시간 34분을 사용하였다. 남편이 부인에 비해 평일에는 약 30분을, 주말에는 약 1시간 30분을 더 많은 여가에 사용하고 있었다. 주말 여가시간은 평일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된 정도는 부인보다 남편의 증가정도가 더 컸다.

전반적으로 남편이 긴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장시간 수입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여가활동으로 해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취업한 부인들의 경우 남편들과 시장노동을 하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보낸 것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여가시간 등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 취업한 부인은 가사노동이라는 또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가사노동시간의 부부간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Hochschild(1989)가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교대근무”를 경험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이승미, 1996; 이현아, 이기영, 김외숙, 1999; 한경미, 1991; Shaw, 1985)과 일치하는 것이다.

2) 활동별 여가시간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활동별 여가시간은 (표 4)와 같다. 먼저 평일의 여가시간을 보면 남편은 3시간 37분, 부인은 2시간 52분을 사용하여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 활동별 여가에 있어서는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있어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과 부인은 여가활동 중 평일, 주말 모두 TV, 라디오 등으로 대표되는 미디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 역시 여가생활 중 미디어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이승미, 1996; 이현아 외, 1999; 조희금 외, 2006). 평일, 주말에 미디어 이용시간은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길었으나, 종교활동 시간은 부인이 남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시간은 남편이 48분, 부인이 25분으로 남편의 시간이 길었다. 부부의 활동별 여가시간에서 부부간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으나 미디어에 지나치게 치우친 여가활동으로 취미활동이나 관광 및 문화행사 등 적극적 여가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부 모두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표 4〉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활동별 여가시간

(단위: 시:분)

행동분류		평일			주말		
대분류	중분류	남편(N = 255)	부인(N = 255)	t값	남편(N = 255)	부인(N = 255)	t값
		0:01	0:00	.780	0:02	0:02	-.298
참여 및 봉사활동	이웃 및 친지 돕기	0:00	0:00	.727	0:00	0:02	-1.523
	참여활동	0:00	0:00	-.128	0:01	0:00	1.764
	자원봉사	0:01	0:00	1.403	0:01	0:00	1.177
		3:23	2:42	4.614***	5:17	3:57	7.246***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0:39	0:40	-.254	0:58	0:51	1.241
	일반인의 학습	0:07	0:04	1.376	0:07	0:02	1.245
	미디어이용	1:32	1:14	2.791**	2:29	1:46	5.306***
	종교활동	0:03	0:08	-2.254*	0:11	0:22	-3.257**
	관람 및 문화행사	0:00	0:00	1.417	0:03	0:03	-.219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14	0:11	1.550	0:28	0:19	2.703**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48	0:25	4.977***	1:01	0:34	4.948***
이동		0:13	0:10	1.154	0:47	0:35	2.363*
총여가시간		3:37	2:52	4.445***	6:06	4:34	6.690***

*p < .05. **p < .01. ***p < .001.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말에 부부의 여가시간은 평일보다 증가하여 남편은 6시간 6분, 부인은 4시간 34분을 사용하였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시간이 부인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 활동별 여가에 있어서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있어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이용에 남편은 2시간 29분을, 부인은 1시간 46을 사용하였고, 종교활동에 남편은 11분, 부인은 22분을 사용하였다.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은 남편이 28분, 부인이 19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남편이 1시간 1분, 부인이 3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여가활동영역은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종교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활동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짧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이승미, 1996; 조희금 외, 2006)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의 여가시간이 요일과 관계없이 여성보다 긴 것은 많은 선행연구 결과(Coverman & Sheley, 1986; Shelton, 1990)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성들은 부인의 가사노동이나 시장노동에 관계없이 남성 개인의 여가시간을 일정하게 배분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 역할부담으로 시간적 압박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여가시간을 축소시키면서 여가시간의 차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직장노동과 관계가 있는 음주나 자기계발, 교제활동 등을 수행할 수 밖에 없어서 여가생활에 있어서 직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여가시간이 길

게 된 측면도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2004)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맞벌이 가구 주부는 요일평균 여가시간 5시간 51분을, 맞벌이 가구 주부는 요일평균 3시간 37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 대상인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인의 여가시간과 비교해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주부의 여가시간이 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취업여부와 어린자녀의 존재유무가 여가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의 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승미, 1996; 허경옥, 1997)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3)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시간 변수에 따른 여가시간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이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시간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편의 여가시간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시간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부인의 여가시간은 시간변수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령에 따른 남편의 여가시간을 보면 평일, 주말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길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여가의 기술을 몇 경험의 부족,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의 여가시간은 주말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말 남편의 여가시간은 고졸이하의 집단보

〈표 5〉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시간변수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

(단위: 시:분)

구분	남편(N = 255)						부인(N = 255)						
	빈도	주중 여가 시간	F값	빈도	주말 여가 시간	F값	빈도	주중 여가 시간	F값	빈도	주말 여가 시간	F값	
연령	29세 이하	15	4:27b	3.335*	15	6:45a	3.360*	40	2:24	1.126	40	4:38	.378
	30-39세	187	3:25ab		187	6:24a		197	2:55		197	4:36	
	40-49세	48	4:11b		48	4:52a		16	3:08		16	3:53	
	50세 이상	5	2:10a		5	4:36a		2	4:00		2	5:15	
	고졸	105	3:12		2.639	105		5:04a	6.174***		141	2:55	
전문대졸	39	3:58	39	7:06b		44	2:33	44		4:27			
대졸	101	3:47	101	6:44ab		64	2:51	64		4:34			
대학원졸	10	4:33	10	6:23ab		6	3:57	6		7:10			
직업	관리,(중)전문	54	3:46	.832	54	6:45bc	3.292*	62	3:15	1.539	62	4:50	1.242
	사무직	43	3:37		43	7:01c		52	2:43		52	5:09	
	서비스, 판매	72	3:46		72	5:34ab		103	2:50		103	4:17	
	기능, 조립	74	3:28		74	6:08abc		12	1:50		12	4:13	
	단순노무	12	2:41		12	4:38a		26	2:46		26	4:04	
소득	100만원미만	18	3:36	.577	18	5:57	1.406	163	3:01	.193	163	4:34	.934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28	3:40		128	5:43		63	2:33		63	4:1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71	3:19		71	6:32		20	2:49		20	5:28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21	2:59		21	7:14		4	1:05		4	3:10	
	400만원이상	17	3:52		17	5:49		5	3:14		5	5:10	
남편 수입 노동 시간	0-4시간	16	7:26e	73.367***	119	8:30d	85.399***	16	3:36	1.132	119	5:10b	3.082*
	4-6시간	13	6:14d		29	5:56c		13	2:57		29	4:29ab	
	6-8시간	28	5:06c		28	4:51b		28	3:02		28	4:02ab	
	8-10시간	96	3:45b		42	3:59b		96	2:57		42	4:07ab	
	10시간이상	102	2:06a		37	1:48a		102	2:36		37	3:36a	
부인 수입 노동 시간	0-4시간	62	3:53	1.013	116	6:54b	8.223***	62	4:24d	29.509***	116	5:37d	27.901***
	4-6시간	49	3:37		35	4:27a		49	3:32c		35	3:39c	
	6-8시간	62	3:47		21	5:01a		62	2:17b		21	2:35b	
	8-10시간	55	3:18		19	4:07a		55	2:01b		19	1:54b	
	10시간이상	27	3:07		13	4:57a		27	1:04a		13	0:47a	
남편 가사 노동 시간	0-10분	112	3:25	1.212	64	5:28	.700	112	2:53	1.471	64	4:57	1.022
	10-30분	38	3:42		31	6:15		38	2:18		31	4:40	
	30-60분	44	4:07		39	6:16		44	3:11		39	4:35	
	60이상	61	3:30		121	6:20		61	2:54		121	4:20	
	부인 가사 노동 시간	0-2시간	40		3:39	.180		24	6:33		1.087	40	
2-4시간	83	3:30	61	5:36	83		2:54	61	4:45ab				
4-6시간	63	3:45	76	6:31	63		3:00	76	4:56ab				
6시간이상	69	3:34	94	5:57	69		2:57	94	3:58a				
남편 미취학 자녀 돌보기 시간	0-5분	153	3:33	.793	121	5:57	.146	153	2:52	.241	121	4:40	1.616
	5-10분	20	3:22		13	6:07		20	2:40		13	4:48	
	10-30분	30	3:56		40	6:15		30	2:38		40	5:05	
	30-60분	29	4:02		33	6:04		29	3:02		33	3:29	
부인 미취학 자녀 돌보기 시간	60분이상	23	3:11	.731	48	6:14	1.119	23	3:01	1.319	48	4:34	.984
	0-30분	74	3:51		72	5:49		74	3:15		72	4:52	
	30-60분	63	3:43		58	6:14		63	2:37		58	4:43	
	60-90분	37	3:33		33	6:43		37	2:09		33	4:52	
돌보기 시간	90분-120분	25	3:10	.731	26	5:07	1.119	25	2:48	1.319	26	3:49	.984
	120분이상	56	3:22		56	6:20		56	2:53		56	4:16	

주. a, b, c, d, e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사후검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의 여가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창조적 활동이나 재생산의 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함으로써 여가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한경미, 1991).

직업에 따른 남편의 여가시간은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의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단순노무직 종사 남편과 기능·조립직 종사 남편 그리고 사무직 종사 남편은 각각 주말 여가시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단순노무직보다는 기능·조립직이, 기능·조립직 보다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주말 여가시간이 길었다.

남편의 여가시간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과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부인의 여가시간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부인의 수입노동시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이승미, 1996; 허경옥, 1997; Firestone & Shelton, 1988; Nickols & Abdel-Ghany, 1983)에서 남편은 여가시간 배분시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편 본인의 수입노동시간 뿐 아니라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에 따른 남편 본인의 여가시간을 보면 요일에 관계없이 그들의 긴 수입노동시간은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변수이고,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특히 주말 남편의 여가시간에 차이를 주는 변수였다.

부인의 여가시간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그 밖에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부인들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시간배분시 여가시간을 감소시킨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부인의 주말 여가시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주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평일에 부인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에게 고정적으로 주어진 직장가 가정의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하게 적은 시간을 여가에 배분하여 남편의 시간사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반면 주말에는 남편들의 수입노동시간이 짧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시간이 가사참여로 이어져 부인들의 여가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순수여가활동과 동시적 여가활동

1) 여가활동과 다른 주요활동의 결합 비율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가 여가활동과 다른 주요활동을 결합한 비율을 나타낸 결과는 <표 6>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평일, 주말 전체 시간일지(1020개)에서 98.7%는 주요활동에 있어 여가를 10분이상 참여하였고, 54.0%의 시간일지는 다른 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여가활동을 하였다. 윤소영과 김현(2007)의 연구에서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주행동이 '여가' 일 때 다른 활동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여가활동을 보인 시간

<표 6> 여가활동과 다른 주요활동의 결합 비율

(단위: %)

	주행동	동시행동	시간일지 기록일의 비율
동시적 여가	여가	개인유지	41.3%
	여가	수입노동	0.2%
	여가	가사노동	4.7%
	여가	여가	25%
	여가	기타	2.3%
순수여가	여가	해당무	54.0%

일지 비율은 86.3%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소영과 김현(2007)의 연구와 달리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노동으로 상대적으로 적어진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동시행동을 수반하는 여가활동시간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가 1차적으로는 여가활동을 할 때 부수적으로 또 다른 활동을 결합하여 여가를 덜 여가적(less leisurely)이도록 하는 가장 큰 행동은 41.3%로 개인유지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또 다른 여가활동 25%, 가사노동 4.7%, 기타 2.3%, 수입노동 0.2%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여가시간을 보낼 때 개인유지와 가사노동이나 또다른 여가활동을 병행하면서 몰입도가 낮아 집중력이 떨어지는 질이 높지 않은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2)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간 순수여가활동시간과 동시적 여가활동시간의 차이

앞서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 모두의 여가의 몰입을 방해하는 행동이 주로 개인유지, 또다른 여가, 가사노동 등임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부부 각각에게 있어 1차적 행동이 여가일 때 또 다른 여가활동이 결합되어 그들의 여가를 방해하는 정도가 부부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수 여가활동시간과 동시적 여가활동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주행동이 '여가' 일 때 동시행동이 없는 순수여가활동(pure leisure activities)시간은 평일과 주말에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일에 남편이 3시간 18분, 부인이 2시간 36분을, 주말에는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의 '순수여가' 활동시간도 증가하여 남편이 5시간 31분, 부인이 4시간 10분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주행동이 '여가' 일 때 동시적 다른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동시적 여가 활동(simultaneous leisure activities) 시간의 총량은 평일에는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에 부부간의 차이가 나타나 남편은 35분, 부인은 24분이었

〈표 7〉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순수여가시간과 동시적 여가시간의 차이

(단위: 시:분)

	주행동	동시행동	평일		t값	주말		t값
			남편(N = 255) 평균	부인(N = 255) 평균		남편(N = 255) 평균	부인(N = 255) 평균	
			0:19	0:16	.659	0:35	0:24	3.228**
동시적 여가	여가	개인유지	0:08	0:09	-1.029	0:13	0:13	.062
	여가	수입노동	0:00	0:00	-	0:00	0:00	-.447
	여가	가사노동	0:01	0:03	-1.887*	0:02	0:02	.543
	여가	여가	0:10	0:04	2.777**	0:20	0:09	4.218***
	여가	기타	0:00	0:00	-1.135	0:00	0:00	-.538
순수 여가	여가	해당무	3:18	2:36	4.619***	5:31	4:10	6.448***
총여가시간			3:37	2:52		6:06	4:34	

+p < .1. *p < .05. **p < .01. ***p < .001.

다. 그런데 이는 주행동이 '여가' 일 때 동시행동 또한 '여가' 인 남편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인보다 크게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시적 여가활동시간 중 주행동이 '여가' 일 때 동시행동 역시 '여가' 인 시간이 평일에 남편은 10분, 부인은 4분, 주말에는 남편은 19분, 부인은 9분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평일, 주말에 부부의 1차적 행동이 여가일 때 동시행동을 함께 분석한 결과 '순수여가' 활동시간이 긴 남편이 부인보다 집중적이고 몰입도가 높은 즉, 질 높은 여가를 향유한다고 할 수 있어 여가시간의 절대적 양 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부간 불평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윤소영과 김현(2007), Bittman과 Wajcman(1999), Mattingly와 Bianchi(2003) 연구에서 하루 동안 순수여가의 최대길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길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바쁜 평일의 경우 맞벌이 부인들은 남편들보다 총여가시간의 절대적 양이 적다는 점에서 여가시간과 결합되는 절대적 동시행동 시간양 또한 적어질 수 있지만 적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동시행동을 수반하는 여가활동시간의 비율은 맞벌이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높는데 이는 선행연구(손문금, 200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의 취업과 미취학 자녀의 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가사노동에 방해받은 부부의 여가시간 정도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에게 있어 가사노동은 여가활동 수행 시 여가의 몰입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부인들의 여가시간이 남편들보다 가사노동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많고, 방해받기 쉬운 시간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행동이 '여가' 일 때 동시행동이 '개인유지' 인 동시적 여가시간은 동시적 여가시간의 총량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여 개인유지가 남편, 부인 모두에게 있어 여가시간

의 몰입을 방해하는 주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교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식사를 해결하는 등의 행동으로 풀이될 수 있는 여가와 개인유지의 병행이 어떠한 성별의 차에 관계없이 부부 모두의 여가시간에 진행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간 여가시간에 존재하는 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성별의 불평등성에 기초하여 첫째, 주행동만을 고려하여 여가시간의 양적 분석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의 차를 분석하고, 둘째, 맞벌이 남편과 부인이 주로 하는 행동이 '여가' 일 때 동시행동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활동을 조합하여 부부간 순수여가시간과 동시적 여가시간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주행동만을 고려하여 여가시간을 분석하고, 부부간 여가시간의 내용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를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은 평일과 주말 모두 개인유지시간이 하루 24시간의 시간 중 1/3이상을 차지하였고, 평일에는 수입노동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으며 주말에는 수입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시간을 여가에 배분하여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 패턴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시간배분에 있어 부부는 수입노동, 가사노동, 여가에 있어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은 수입노동과 여가에 부인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고, 부인은 가사노동에 남편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다. 총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부인의 시간이 남편보다 커서 부인의 노동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수행은 물론 취업으로 인한 시장노동으로 시간제약이 여가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게 되어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가능한 여가시간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은 남편과 부인의 여가활동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종교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활동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짧은 시간을 배분하였다. 주말에 있어 부인의 여가시간이 남편에 비해 짧은 것은 남편은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대된 시간을 여가에, 부인은 가사노동에 배분을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여가시간에 있어 부부간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으나 미디어에 지나치게 치우친 여가활동으로 취미활동이나 관광 및 문화행사 등 적극적 여가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부 모두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이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시간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남편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남편 본인의 수입노동시간 뿐 아니라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 반면 부인의 여가시간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 자신의 가사노동시간, 그 밖에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편의 여가시간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시간 변수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부인의 여가시간은 시간변수에 따라서만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인들의 여가시간은 부인들의 인구사회학적 조건이나 특성보다 자신 또는 남편이 배분할 수 있는 시간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하는 바 남편들의 가사노동 협조와 부인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넷째,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여가활동 수행시 동시에 개인유지나 가사노동, 또 다른 여가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노동으로 시간제약을 느끼는 맞벌이 부부들은 덜 여가적(less leisurely)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순수여가시간'은 평일, 주말 모두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들은 특히 주행동이 '여가'일 때 동시적 다른 활동 즉, 가사노동이나 또 다른 여가활동의 개입과 조합에 의해 '순수여가'가 훼손되어 여가의 몰입 측면에 있어서 부인이 남편보다 보다 덜 집중적이고 주변의 요소에 의해 방해정도가 높아 여가의 내용이나 질적 측면에서 문제

가 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성별간 여가활동의 불평등성은 여가의 절대적 시간 양에서 뿐 아니라 여가의 내용적인 면이나 몰입정도에 있어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인들은 여가시간의 절대적 양이 남편들보다 적었을 뿐 아니라 여가시간의 내용에 있어도 동시적 또 다른 활동의 개입으로 '순수여가' 활동시간이 남편들보다 적어 취업주부들의 여가의 절대적 시간 양 확보와 함께 여가시간의 활용과 내용 그리고 여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인들은 적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여가시간을 또 다른 동시적 활동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사회가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옮겨가면서 여가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권리가 여성,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 있어서는 시장노동과 육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침해되고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개별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즉, 기업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취업주부의 시간적 압박의 근원인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과 함께 질 높은 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여성복지 향상 및 일과 생활의 균형맞추기(WLB) 실현을 위해 직장이나 지역사회 내에 여가시설과 공간 확보,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여가교육, 가사서비스지원, 아이돌보미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사노동으로 인해 방해 받는 여가시간은 성(gender)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의 성별 평등성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사노동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여성은 자신의 여가시간에 가정관리나 자녀돌보기와 같은 가족에 대한 의무수행으로 노동력 재생산 및 휴식, 즐거움 등과 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여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인들의 경우 남편들과 시장노동을 하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가시간은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된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조정되면서 몰입도가 낮고, 즉흥적이며 단절되어 남편의 여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여가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남편과 기타 가족원의 가사노동 협조와 같은 가정적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 노동구조나 가족 내 존재하는 남녀간 지위와 권력, 역할에 대한 차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의 내용에 대한 비교와 함께 농촌 가정, 한부모가

정, 결혼이민자 가정, 조손가정, 독신가정 등 다양한 연구대상별 여가시간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그들의 여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양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주체를 통한 국민의 여가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영숙(2004).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7(4), 83-98.
- 김정은, 최석호, 윤소영(2005).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 노용구(2003). **여가학**. 서울: 대경북스.
- 삼성경제연구소(2006). 경영의 새 화두. 일과 생활의 균형(WLB). CEO Information.
- 손문금(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청 통계연구 기율**, 8(2), 23-58
- 윤소영, 김현(2007). 여가시간의 동시적 활동 분석을 통한 성차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85-94.
- 윤소영, 박영정(2005). 2006 여가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 윤소영, 정유희(2003). 핵가족 부부의 가족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자녀 학령기 가족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1), 79-95.
- 이승미(1996).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이종희(2001).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철원, 김지영, 한우진(2006). 도시 근로자들의 여가 몰입과 여가 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5), 61-72.
- 이현아, 이기영, 김외숙(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5.
-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희금, 이기영, 김외숙, 이연숙, 이승미, 홍두승 외(2006).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05-222.
-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통계청(2004). 「2004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근로자 여가생활 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국민 여가활동조사」.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 가정생산 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홍향숙, 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32(2), 49-60.
- Becker, G.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lla, L.(1989). *Women and leisure: Beyond androcentrism*. In E. L. Jackson & T.L.Burton(Eds.),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pp.151-179). State College, PA: Venture.
- Bianchi, S. M., Robinson, J. P., & Milkie, M.(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Russell Sage.
- Bittman, M., & Wajcman, J.(1999). *The Rush Hour: The Quality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PRC Discussion Paper 97*.
-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Coverman, S., & Sheley, J. 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Douthitt, R. A., Zick, C. D., & McCullough, J.(1990). The role of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 explaining time-use of single and married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23-52.
- Firestone, J., & Shelton, B. A.(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78-495.
- Hochschild, A.(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NY: Avon Books.
- Kaplan, M.(1975). *Leisure: Theory and Policy*. New York: Wiley.
- Kelly, J. R., & Godbey, G.(1992). *The Sociology of Leisure*,

- Venture.
- Mannell, R. C., & Kleiber, D. A.(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 Mattingly, M. J., & Bianchi, S. M.(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81(3) 999-1030.
- Nickols, S. Y., & Abdel-Ghany, M.(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12(2), 189-198
- Robinson, J. P.(1977). *How American Use Tim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Praeger Pub.
- Rojek, C.(2002).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Decentring Leisure - Rethinking Leisure Theory). 최석호, 이진형(공역). 서울: 일신사. (1995년 원저발간)
- Ross, C. 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816-833.
- Scott, D., & Godbey, G. C.(1992). An analysis of adult play groups: Social versus serious participation in contract bridge. *Leisure Science*, 14(1), 47-67.
- Shaw, S. M.(1985). Gender and Leisure :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4), 266-282.
- Shaw, S. M.(1994). Gender, leisure and constraint: Toward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women'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1), 8-22.
- Shaw, S. M.(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 23(4), 217-230.
- Shelton, B. A.(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2), 115-135.

접 수 일 : 2008년 6월 20일

심사시작일 : 2008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9일